



주 제:	“회개와 기쁨 ”	“대림 제 2 주일 ”	2009년 12월 6일
복음 묵상:	[루가 3,1-6]	[바룩 5,1-9]	[필립 1,4-6.8-11]

대림시기는 오만과 자만의 언덕을 겸손으로 깎아 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지의 골짜기를 하느님에 대한 지혜로 채우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디서 피정이 있다고 하면 기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느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고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사실은 벌써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집안이 늘 회개와 기쁨의 마음으로 차 있다면 주님은 늘 오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분은 아무도 모르는 결정적인 날 종말에 분명히 재림하실 겁니다. 종말에 우리는 예수님을 뿔뿔하게 뺏기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세례자 요한은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를 네 행실로 보여라!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이웃에 대한 우정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례 받지 않은 익명의 크리스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세례 받고 성당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입으로 늘상 죄를 짓는 우리들보다도 성당에는 발 한 번 들여놓지 않았어도 하느님이 주신 그 양심대로 살면서 묵묵하게... 삶 자체가 교회를 향하고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는 착한 익명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다운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다운 천주교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뜻은 이기적인 마음에서~~ 교만한 태도에서 겸손한 태도로~~ 소극적인 생활에서 무언가 적극적인 생활로~~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웃에 보여질때~~

아, 저 분을 보면 하느님이 보인다!
저 천주교 신자를 살아가는 재미를 느낀다!
저 천주교 신자를 보면 그래도 이 세상 밝은 면이 있구나!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하느님의 창고에 쌓임을 받을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름만의 신자, 형식적인 믿음, 끌려 다니는 이런 전례 생활은 하느님 나라를 절대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 웅렬 신부님 강론에서)

-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김순덕 카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미사 및 특강 안내**
- 성모 심신 미사; 12월 5일 (토) 오전 10시
 - 손우배 요셉 신부님 (예수회) 대림 특강; 12월 9일(수) 오후 7시 30분
주제; 고독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인간

대림시기 전례

대림시기의 각 주일의 주제 및 전례적 성격

대림 제 2 주일; 구세주의 오심에 대비하여 회개하도록 촉구

대림 제 3 주일; 구세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고 권고

대림 제 4 주일; 예수 탄생의 예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힘.

+ 복음 [루가 3,1-6]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래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1분 명상

♡"지혜로운 삶"♡



우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때 과감히 행동하라,

벼어리 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雪)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 할줄도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워있는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 할줄을 알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때를 조심하고 겸손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할줄도 알고
오랑이 처럼 무섭고 사나워 할줄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오늘의 말씀 사랑: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1 코린 16,13).”